

환경올림픽 랍사르 총회 D-8

1억4,000만년 전 신비의 습지를 만나다

환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제10차 랍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전남 창원에서 오는 28일부터 11월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CECO) 및 창원, 창녕 등 경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제10차 랍사르 총회는 아시아에서 일본 쿠시로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리고, 전세계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란 주제로 160여개 당사국 정부 대표와 30여개 국제기구 등 2천여명이 참가해 습지의 보존과 이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회의가 열린다.

◇총회 어떻게 진행되나=개회식에는 유엔사무총장, 랍사르협약 사무총장, 국회의원 등 1천300여명이 초청돼 1·2부에 걸쳐 랍사르기 전달, 랍사르상 시상, 국제기구 대표 연설 등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10차 총회부터는 선언적인 총회가 아니라 습지보전은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참가국들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총회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총회와 차별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폐막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창원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도 협약 당사국들의 이행을 강제하고 정기적으로 실천사항을 점검하도록 해 오는 2014년까지 참가국들의 습지보전 지침으로 활용되게 된다.

총회에서는 습지의 바람직한 보전과 활용 등을 논의할 31개의 의제가 마련됐으며, 이 중에는 벼농사를 짓는 논에 대한 보전 방안과 함께 논 생태 다양성 증진에 대한 의제도 포함돼 있다. 총회는 상임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위원회 회의 등이 8일간 개최되며, 습지의 보전을 위한 많은 의제들이 논의된다.

◇개·폐회식=총회의 개최를 알리는 개회식과 성공적인 대대원을 알리는 폐회식은 식전행사·공식행사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식전행



오는 28일부터 '제10차 랍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경남 창녕군 우포늪에서 가시연꽃이 활짝 피어있다. 사진 오른쪽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 주남저수지.

경남 창원 등서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 주제 28일 개최

160개국 2,000여명 참석... 순천만·우포늪 등 8개코스 탐방

사는 한국의 전통과 아름다운 자연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공식행사 사이사이에도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줄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랍사르총회준비기획단은 이번 랍사르총회가 환경협약 총회임을 고려, 간소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개최할 예정이다.

◇친환경 총회=환경부와 경남도, 창원시, 창녕군은 랍사르 총회 유치 이후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협력을 토대로 총회를 준비했으며, 총회 준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회의

에 임할 수 있도록 행사 인프라를 구축하되 친환경총회(Green COP10)를 개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도는 친환경 총회를 위해 총회기간에 종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USB메모리 사용, 참가자들의 수송을 담당할 차량 중 일부를 CNG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준비하고 있다.

◇공식탐방 코스=환경부, 랍사르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에 확정된 8개 탐방코스는 습지와 새, 문화, 환경, 자연, 생활의 5가지 테마로 구분하여 개최지인 경남은 물론 부산시(낙동강 하

구), 전라남도(순천만)를 아우르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주요 탐방지는 우포늪, 진해 에너지환경과학공원, 순천만, 주남저수지, 김해 수로왕릉, 낙동강하구, 마산 봉암곶별, 해인사, 왕등재, 창원의 집 등이다. 공식탐방은 총회기간 중 개최국의 습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주요 습지의 아름다움과 경남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160여개국 랍사르협약 당사국에게 소개하게 되며, 11월 2일 정부 대표, NGO 등 총회 공식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또 총회 참석자 및 동반자를 대상으로 습지, 전통문화, 관광, 발전상 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경남 지역과 서울, 전남, 제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18개의 유료관광 코스로 운영하게 된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김태호 경남지사 인터뷰

“환경올림픽 랍사르 총회 개최 경남 창원으로 초대 합니다”

“환경올림픽인 제10차 랍사르총회에 국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랍사르 총회의 사실상 사령탑인 김태호 경남지사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이번 랍사르총회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환경관련 국제협약 당사국 총회”라며 “총회를 주관하는 경남도의 입장에서 이번 랍사르총회가, 대한민국이 환경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우리나라가 환경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조건 이외에도 국민들의 습지 및 환경보전 인식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번 랍사르 총회가 한국의 환경정책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김 지사는 또 “총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총회 참가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많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랍사르총회는 습지를 이해하고 환경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번 랍사르총회를 계기로 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총회가 열리는 창원 컨벤션센터 주변과 우포늪 등을 찾았다면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경남 방문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랍사르총회 공식 방문지인 우포늪은 한반도가 생성된 1억4천만년전 태고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우포늪의 생생한 자연을 만날 수 있으며, 국내 최대 내륙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에서의 철새 군무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 경남 창녕 '우포늪'

랍사르 총회때 가볼만 한 곳

▶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한반도 생성 시기 만들어진 '환경 허브'

우포늪은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1억4천만 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만들어졌다.

담수면적 2.3km², 가로 2.5km, 세로 1.6km로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다.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 가운데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듬해 3월 2일에는 국제습지조약 보존습지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습지가 되었다.

우포늪(1.3km²), 목포늪(53만m²), 사지포(36만m²), 쪽지벌(14만m²) 4개 늪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7년 342종의 동·식물이 조사·보고되었다. 창녕 우포늪(우포·목포·사지포·쪽지벌을 총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내륙습지로 창녕군 유어면·이방면·대합면·대지면 등 4개 행정구역에 걸쳐 펼쳐져 있다.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가슴

전체 면적 231만2,626m²
1998년 국제 보존 습지 지정

을 열어 보이는 우포늪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를 느끼게 한다.

우포 전체 면적은 231만2천626m²이며, 각 습지의 크기는 우포(127만8천285m²)-목포(53만284m²)-사지포(36만4천731m²)-쪽지벌(13만9천262m²) 순이다. 특히 우포본늪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왕버들 군락은 가던 발길을 멈추게 한다. 왕버들은 수질정화 기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조류 15만 개체 서식하는 '철새 천국'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가월리에 있는 주남저수지는 랍사르총회 방문 습지로 개구리밭·붕어마름 등 각종 먹이가 풍부하여 국내 내륙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다.

10월 중순에서 12월까지 시베리아·중국 등지에서 제두루미(천연기념물 203)·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205)·고니(천연기념물 201)·큰기러기·쇠기러기·청둥오리·쇠

오리·고방오리·흰죽지·큰고니 등 20여 종의 철새들이 날아와 이듬해 3월말까지 월동한다. 여기서 관찰되는 조류는 모두 131종 14만9788개체(평균개체수 1만2482)에 이른다.

국가습지보전사업 낙동강시범지역관리단에 따르면 주남저수지의 우점종은 가창오리로 모두 3만3천25개체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 급인 노랑부리저

물꿩·황기러기·호사도요...
멸종 위기·희귀종도 발견

어새 19개체, 흰꼬리수리 2개체, 매 1개체가 관찰됐고, II급은 흰이마기러기 1개체, 잣빛개구리매 1개체, 흑두루미 2개체 등 12종이 조사됐으며, 천연기념물 16종도 관찰됐다.

또한 희귀종으로 물꿩, 붉은부리찌레기, 흰점찌레기, 흰기러기, 호사도요 등도 발견됐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동 11월 14(금) 오픈

11월 14(금) 장윤정

광주첨단·특스존엄 호박 나이트

15일 16일 조항조	17일 18일 송대관	20일 21일 최진희	25일 26일 박현빈	27일 28일 김수희	4일 5일 심운도
-------------	-------------	-------------	-------------	-------------	-----------